

투자 의견(신규)	매수
목표주가(신규)	32,000원
현재주가(26/10/26)	23,400원
상승여력	36.8%

영업이익(26F, 십억원)	108
Consensus 영업이익(26F, 십억원)	109
EPS 성장률(26F, %)	35.8
MKT EPS 성장률(26F, %)	-
P/E(26F, x)	11.8
MKT P/E(26F, x)	-
KOSDAQ	727.21
시가총액(십억원)	1,058
발행주식수(백만주)	45
유동주식비율(%)	55.7
외국인 보유비중(%)	9.8
베타(12M) 일간수익률	0.51
52주 최저가(원)	16,420
52주 최고가(원)	29,900

(%)	1M	6M	12M
절대주가	9.6	-9.7	31.2
상대주가	27.3	49.6	59.3



[글로벌 바이오섹터]

서미화

mihwa.seo@miraeasset.com

동국제약

약이 만든 화장품, 이제 해외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 32,000원,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동사의 목표주가는 27F EPS(2,455원)에 PER 13.04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적정 PER은 브랜드 화장품 및 헬스케어 사업의 성장성과 기존 제약 사업 가치를 고려하여 에이피알, 클래시스, 동아제약, 휴젤을 Peer로 한 평균 PER을 적용했다. 단순 국내 제약사 비교보다 화장품 매출 비중 및 수출 비중 상승에 따른 사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자 의견은 상승여력이 36.8%인 점을 고려하여 매수로 제시했다.

동국제약은 2026년 10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사명을 '디케이센텔리안'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11월 27일 임시주총 예정)했다. 이는 기존 국내 의약품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헬스&뷰티 영역으로의 본격적 확장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화장품 중심의 수출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거 센텔리안24의 성장이 국내 홈쇼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핵심은 해외 매출 확대다. 2026년 2분기 화장품 매출은 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얼타 뷰티(Ulta Beauty) 1,400개 매장에 이어 노드스트롬, 코스트코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고, 일본에서는 돈키호테·로프트·마츠모토키요시 등 약 1,000개 오프라인 매장에 진입했다. 국내 화장품 매출 성장 단계를 넘어 글로벌 K-더마 브랜드로 확장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성장의 중심이 화장품으로

2026년 매출액 1.04조원(+12.3% YoY), 영업이익 1,084억원(+12.3% YoY)으로 추정했다. 센텔리안24 브랜드의 해외 매출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상향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미국 및 일본 신규 채널 초기 마케팅 비용이 확대되거나 오프라인 판매량이 기대를 하회할 경우 단기 수익성 개선 속도는 늦어질 수 있다. 2026년은 연결 매출액 1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첫해로 이익 성장의 중심이 기존 제약 사업에서 해외 화장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산기 (12월)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십억원)	812	927	1,041	1,194	1,366
영업이익 (십억원)	80	97	108	130	157
영업이익률 (%)	9.9	10.5	10.4	10.9	11.5
순이익 (십억원)	61	66	90	111	136
EPS (원)	1,353	1,460	1,982	2,455	3,011
ROE (%)	10.7	10.4	12.7	14.0	15.0
P/E (배)	12.2	11.7	11.8	9.5	7.8
P/B (배)	1.2	1.2	1.4	1.3	1.1
배당수익률 (%)	1.2	1.2	0.9	0.9	0.9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밸류에이션

1.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 32,000원, 투자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동사의 목표주가는 27F EPS(2,455원)에 PER 13.04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적정 PER은 브랜드 화장품 및 헬스케어 사업의 성장성과 기존 제약 사업 가치를 고려하여 에이피알, 클래시스, 동아제약, 휴젤을 Peer로 한 평균 PER을 적용했다. 단순 국내 제약사 비교보다 화장품 매출 비중 및 수출 비중 상승에 따른 사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투자의견은 상승여력이 36.8%인 점을 고려하여 매수로 제시했다.

기존 OTC와 ETC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제공하는 가운데 화장품 사업은 국내 홈쇼핑 중심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금까지가 '마데카 크림의 성공'이었다면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센텔리안24의 글로벌 브랜드화'다. 2026년 해외 매출 증가, 2027년 수출 확대에 의한 이익률 상승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센텔리안24의 해외 성장이 지속될 경우, 제약 사업의 안정성과 K-뷰티의 성장성이 결합된 사업 구조가 동사의 핵심 리레이팅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1. 동국제약 목표주가 산정

구분	내용	비고
EPS	2,455	27F EPS
적정 PER	13.04	Peer 평균 PER 13.04배 적용
적정주가(원)	32,019	
목표주가(원)	32,000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리스크

동국제약은 화장품의 성장 지속성이 중요하다. 해외 신규 유통망 입점에 따른 초기 sell-in 이후 실제 소비자 판매와 재주문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마데카파마시아와 루온셀, 뷰티 디바이스 등 신규 브랜드의 성공 여부도 장기적인 성장 지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일본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간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망 진입 자체보다는 점포당 매출과 브랜드 재구매율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3. 실적 전망

2025년 연결 매출액은 9,269억원(+14.1% YoY), 영업이익은 966억원(+20.1% YoY)을 기록했다. 2Q26 매출액은 2,589억원(+10.9% YoY), 영업이익 261억원(+17.9% YoY)이다. 일반의약품(OTC) 매출은 463억원(+3.2% YoY), 전문의약품(ETC) 615억원(+10.5% YoY), 헬스케어 매출은 1,031억원(+29.9% YoY)이다. 헬스케어 부문은 처음으로 분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6년 매출액 1.04조원(+12.3% YoY), 영업이익 1,084억원(+12.3% YoY)으로 추정했다. 센텔리안24 해외 매출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상향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미국 및 일본 신규 채널 초기 마케팅 비용이 확대되거나 오프라인 판매량이 기대를 하회할 경우 단기 수익성 개선 속도는 늦어질 수 있다.

향후 실적 추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화장품 해외 매출이다. OTC는 한 자릿수 초반, ETC는 두 자릿수 초반 성장을 가정했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 구조는 'OTC/ETC의 안정성 + 헬스케어의 성장성'이다. 제약사업이 실적의 하방을 지지하는 가운데 화장품이 전사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결정하는 구조다.

표 2. 동국제약 실적 추이 및 전망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L)	2,237	2,335	2,268	2,429	2,510	2,589	2,541	2,769	9,269	10,409	11,944
YoY	13.7%	14.7%	12.9%	15.1%	12.2%	10.9%	12.0%	14.0%	14.1%	12.3%	14.7%
동국제약	1,812	1,897	1,864	2,033	2,104	2,222	2,150	2,365	7,606	8,841	10,205
OTC	420	448	425	414	445	463	439	429	1,707	1,776	1,837
ETC	497	557	595	632	537	615	679	728	2,281	2,559	2,871
헬스케어	790	794	742	839	998	1,031	905	1,044	3,164	3,978	4,898
수출	108	100	81	105	115	117	94	118	393	445	503
기타	(3)	(1)	21	44	8	(4)	34	46	61	84	95
동국생명과학	342	342	287	306	316	239	253	267	1,275	1,076	1,091
위드닉스	12	18	22	15	7	18	29	31	67	85	186
리봄화장품	72	77	96	76	82	110	108	106	321	407	462
매출원가	1,038	1,091	1,024	1,100	1,102	1,149	1,135	1,232	4,253	4,619	5,273
판매비	946	1,023	996	1,086	1,135	1,179	1,144	1,249	4,050	4,706	5,375
영업이익	253	221	248	243	273	261	262	288	966	1,084	1,296
YoY	20.5%	15.2%	10.1%	37.6%	8.0%	17.9%	5.7%	18.4%	20.1%	12.3%	19.6%
영업이익률	11.3%	9.5%	10.9%	10.0%	10.9%	10.1%	10.3%	10.4%	10.4%	10.4%	10.9%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II. 투자포인트

1. 센텔리안24, 국내 성공 공식을 해외에서 다시 시작

2025년 헬스케어 사업 매출은 3,164억원으로 전사 연결 매출의 약 34%까지 확대됐다. 화장품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미용기기, 생활건강 제품까지 사업 영역도 확대 중이다.

센텔리안24는 동국제약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성장 자산이다. 센텔리안24의 출발점은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이다. 동국제약은 50년 이상 축적해 온 병풀(Centella asiatica) 관련 기술과 브랜드 인지도를 화장품으로 확장했고, 2015년 마데카 크림 출시 이후 제약사 화장품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2026년 9월 기준 마데카 크림 누적 판매량은 1억개를 넘었다. 동국제약은 사명도 '디케이센텔리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동국제약 매출의 중요한 변화는 해외 시장으로 성장 축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센텔리안24는 그동안 국내 매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내수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2024년 화장품 수출 약 163억원, 2025년 약 3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Q26 센텔리안24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채널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뒤, 26년 5월 얼타 뷰티 1,400개 매장에 진입했고, 7월 코스트코 약 200개 매장까지 채널을 확장했다. 일본에서도 돈키호테, 로프트, 마츠모토키요시 등 약 1,000개 매장에 입점했다. 태국에서는 왓슨스와 뷰트리움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홈쇼핑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한 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던 것과 유사하다. 해외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먼저 제품력을 검증받은 이후 대형 오프라인 리테일러로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2026년에는 수출 성장률 자체보다 미국·일본 오프라인 입점 이후 재주문율과 점포당 매출의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

1) 매출 성장보다 중요한 변화, 채널 믹스

센텔리안24의 과거 약점은 높은 국내 및 홈쇼핑 의존도였다. 2023년까지 화장품 매출의 약 절반을 홈쇼핑이 차지했으나, 2025년에는 30%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자사몰·쿠팡 등 온라인과 올리브영·다이소 등 오프라인 비중이 확대됐다. 판매 채널 다변화 과정에서 헬스케어 사업 매출 대비 판매 수수료 비중도 2023년 45.2%에서 2024년 36.6%로 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수출 비중 상승이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국제약 화장품 사업에서 봐야 할 지표는 단순 매출 증가율이 아니다. 1) 해외 매출 비중, 2) 홈쇼핑 의존도, 3) 광고·판매 수수료율, 4) 해외 ASP, 5) 재주문율이 중요하다.

수출 확대와 채널 믹스 개선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화장품 매출 증가율을 넘어 전사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연결 영업이익률은 10.4%로 2024년 9.9%에서 0.5%p 개선됐으며, 해외 화장품 매출 확대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해외 매출 확대를, 2027년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센텔리안24 채널 확대 및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마데카 크림 다음을 준비한다

센텔리안24의 고성장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단일 브랜드와 마데카 크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동국제약도 이를 위해 브랜드와 유통 채널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약국 채널에서는 ‘마데카파마시아’를 확대 중이다. 2026년 8월 기준 마데카파마시아는 전국 약 6,000개 약국에 입점했다. 2026년에는 신규 더마 브랜드 ‘루온셀’도 출시했다. 루온셀은 9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진입하며 기존 센텔리안24와 차별화된 소비자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뷰티 디바이스도 강화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프라임을 출시한 이후 2024년 미용기기 제조사 위드닉스를 인수했다. 화장품뿐 아니라 홈뷰티 디바이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핏 등으로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다. 2026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마이핏 누적 매출은 약 470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마데카 크림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약 기반 컨슈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가 동사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림 2. 화장품 사업 제품 확대



자료: 동국제약,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프리미엄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딩 전략



자료: 동국제약,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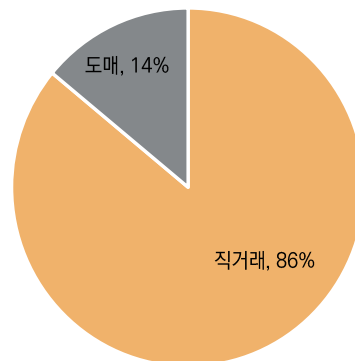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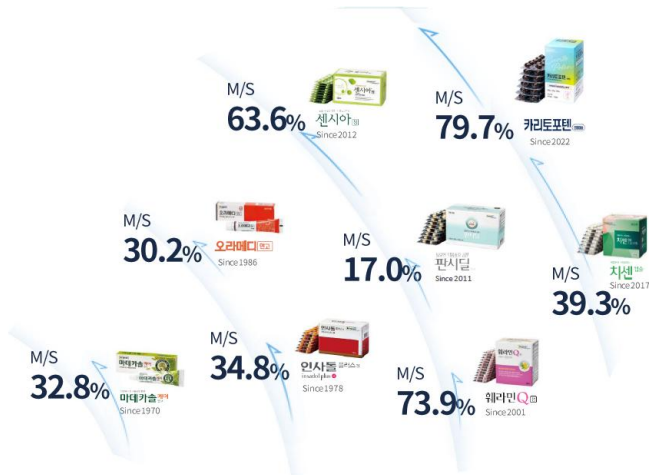
2. 의약품 매출 견고

동국제약의 가장 큰 강점은 성장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도 기존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Q26 일반의약품(OTC) 매출은 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전문의약품(ETC) 매출은 615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반면 헬스케어 사업 매출은 1,031억원으로 29.9% 증가했다. 그중 화장품 매출은 810억원으로 47.6% 증가하며 전사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OTC에는 헤파민큐(M/S 73.9%), 센시아(M/S 63.6%), 치센(M/S 39.3%), 인사돌(M/S 34.8%), 마데카솔(M/S 32.8%), 판시달(M/S 17%) 등 오랜 기간 소비자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가 포진해 있다. 천연물을 추출하여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생산에서 포장 및 출하까지 가능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기준 국내 약국 약 66%를 직접 관리하며 OTC 전체 매출 중 직거래 비중이 약 86%로 높다. ETC 역시 수액제와 순환기·내분비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다.

그림 4. 동국제약의 주요 OTC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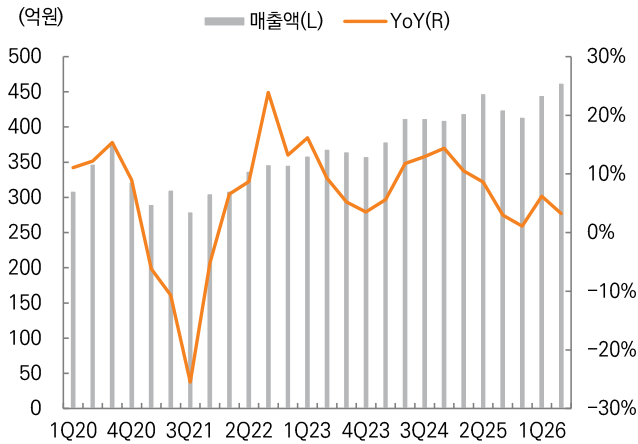
그림 5. 직거래 비중 약 86%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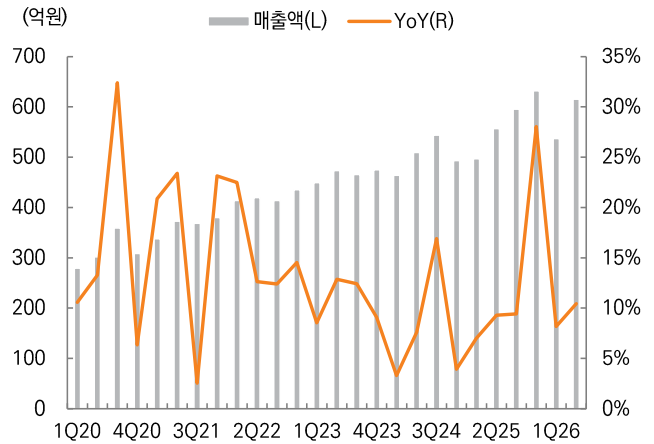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OTC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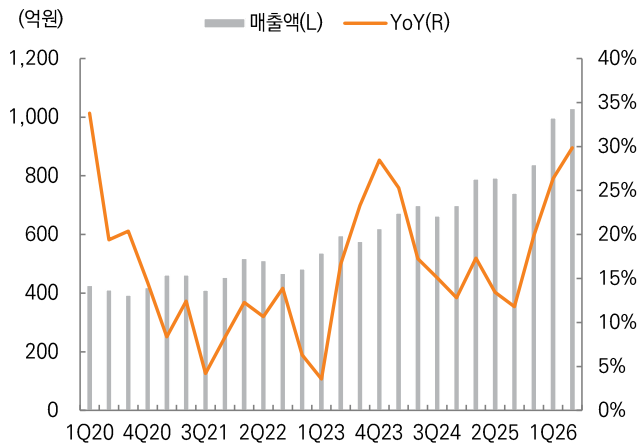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ETC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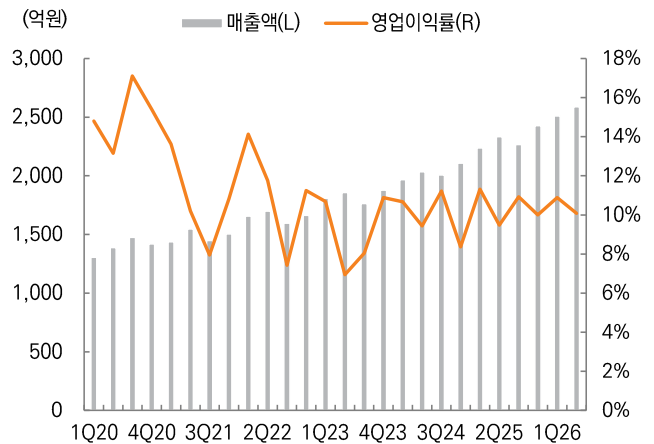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헬스케어 부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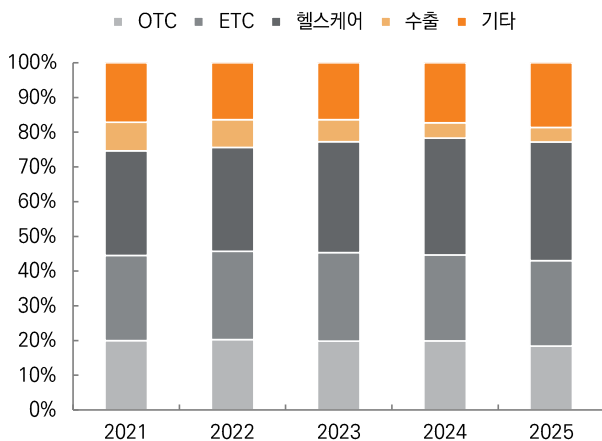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동국제약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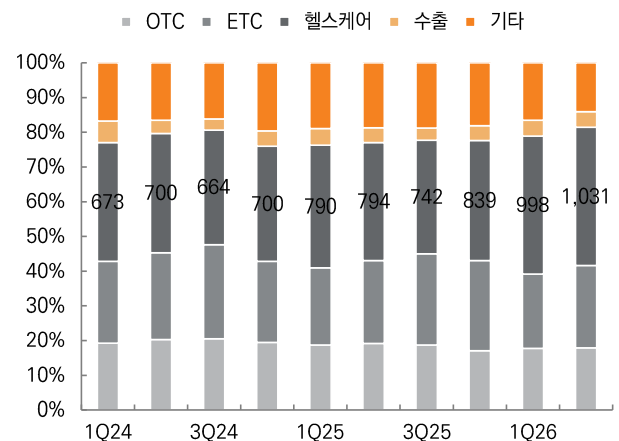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연간 사업부별 매출 비중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분기별 사업부 매출 비중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 R&D는 아직 본업의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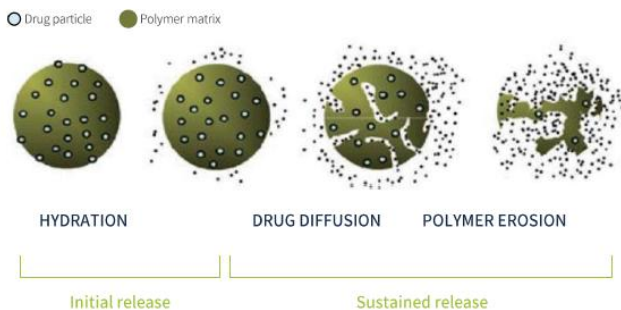
동국제약은 약물전달시스템(DDS)을 핵심 연구 영역으로 설정하고 마이크로스피어와 리포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스피어는 약물을 수주~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장기지속형 제제 기술이며, 리포좀은 약물의 안정성과 조직 전달 효율을 높이는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전립선암 치료제 로렐린데포주의 투여 간격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임상 3상을 완료했다. 2026년 9월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단계로 2027년 출시가 목표다.

동국제약은 현재 알츠하이머, 당뇨,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을 비롯해 전립선암·유방암, 말단비대증, 비만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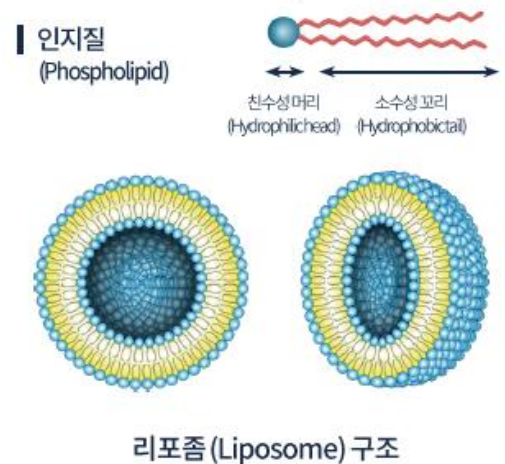
다만 현시점에서 R&D 가치를 밸류에이션의 핵심으로 반영하기에는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상황 및 상업화 가시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당분간 투자포인트의 우선순위는 1) 화장품 해외 성장, 2) OTC·ETC의 안정적 성장, 3) R&D 순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12. 체내에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는 약물전달시스템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체내 약물 독성을 감소시킨 약물전달시스템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동국제약 (08645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927	1,041	1,194	1,366
매출원가	425	462	527	601
매출총이익	502	579	667	765
판매비와관리비	405	471	537	608
조정영업이익	97	108	130	157
영업이익	97	108	130	157
비영업손익	-4	2	5	9
금융손익	3	2	4	7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4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93	110	135	166
계속사업법인세비용	19	20	26	32
계속사업이익	74	90	109	134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74	90	109	134
지배주주	66	90	111	136
비지배주주	8	0	-2	-2
총포괄이익	70	89	109	134
지배주주	63	89	111	136
비지배주주	8	0	-2	-3
EBITDA	128	142	159	181
FCF	26	54	97	112
EBITDA 마진율 (%)	13.8	13.6	13.3	13.3
영업이익률 (%)	10.5	10.4	10.9	11.5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7.1	8.6	9.3	10.0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565	648	814	978
현금 및 현금성자산	56	72	151	22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43	277	319	363
재고자산	175	200	230	263
기타유동자산	91	99	114	129
비유동자산	498	517	489	467
관계기업투자등	10	12	14	16
유형자산	312	324	297	275
무형자산	42	42	39	38
자산총계	1,063	1,165	1,303	1,445
유동부채	267	288	325	34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69	192	221	253
단기금융부채	55	46	46	22
기타유동부채	43	50	58	65
비유동부채	32	33	35	37
장기금융부채	22	22	22	22
기타비유동부채	10	11	13	15
부채총계	299	321	359	376
지배주주지분	664	744	846	973
자본금	23	23	23	23
자본잉여금	28	28	28	28
이익잉여금	613	693	795	922
비지배주주지분	100	100	98	96
자본총계	764	844	944	1,069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	87	97	112
당기순이익	74	90	109	134
비현금수익비용가감	62	58	50	48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0	32	27	22
무형자산상각비	2	2	2	2
기타	30	24	21	2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및부채의 변동	-44	-36	-36	-3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4	-28	-38	-42
재고자산 감소(증가)	-17	-25	-30	-3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3	14	18	20
법인세납부	-23	-25	-26	-3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	-44	-4	-2
유형자산처분(취득)	-29	-32	0	0
무형자산감소(증가)	-3	-1	0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9	-10	-12	-13
기타투자활동	-11	-1	8	1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26	-12	-36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4	-9	0	-25
자본의 증가(감소)	3	0	0	0
배당금의 지급	-9	-9	-9	-9
기타재무활동	9	-8	-3	-2
현금의 증가	6	16	79	72
기초현금	50	56	72	151
기말현금	56	72	151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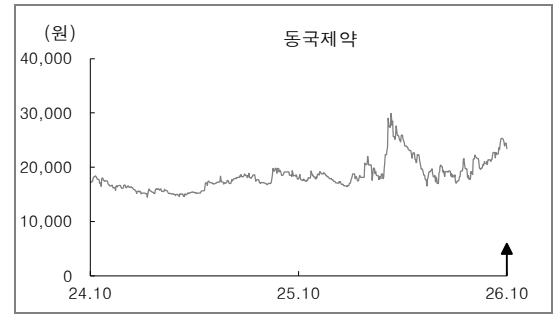
자료: 동국제약,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5	2026F	2027F	2028F
P/E (x)	11.7	11.8	9.5	7.8
P/CF (x)	5.7	7.2	6.7	5.8
P/B (x)	1.2	1.4	1.3	1.1
EV/EBITDA (x)	6.5	7.5	6.2	4.8
EPS (원)	1,460	1,982	2,455	3,011
CFPS (원)	3,013	3,262	3,508	4,012
BPS (원)	14,691	16,461	18,716	21,528
DPS (원)	200	200	200	200
배당성향 (%)	12.2	10.0	8.3	6.7
배당수익률 (%)	1.2	0.8	0.8	0.8
매출액증가율 (%)	14.1	12.3	14.7	14.4
EBITDA증가율 (%)	17.8	10.8	11.6	14.4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20.1	12.3	19.6	21.2
EPS증가율 (%)	7.8	35.8	23.8	22.6
매출채권 회전율 (회)	4.6	4.4	4.4	4.4
재고자산 회전율 (회)	5.5	5.6	5.6	5.5
매입채무 회전율 (회)	4.6	4.1	4.1	4.0
ROA (%)	7.3	8.1	8.8	9.7
ROE (%)	10.4	12.7	14.0	15.0
ROIC (%)	13.4	13.6	16.3	19.3
부채비율 (%)	39.2	38.1	38.1	35.2
유동비율 (%)	211.4	225.0	250.7	287.8
순차입금/자기자본 (%)	-6.3	-10.5	-19.0	-27.0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46.5	45.9	48.0	71.2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동국제약 (086450) 2026.10.26	매수	32,000	-	-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주가하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투자의견 분류기준 변경(Trading Buy 의견 삭제)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 20% 미만의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금융투자분석사 재량에 따라 '매수' 또는 '중립' 의견으로 제시함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89.66%	0%	9.77%	0.57%

* 2026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국제약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